

노후 저수지 1. -되풀이되는 위험, 댐질식 처방만

[앵커]

이곳 포항과 경주에는 태풍 힌남노 상처가

여전히 남아 있습니다.

당시 저수지 4곳에서 제방이 붕괴되거나 유실돼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.

<여>

태풍과 집중호우 때마다 같은 피해가 반복돼

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.

TBC는 경북지역 노후 저수지 문제점에 대해

오늘부터 연속 보도를 이어갑니다.

박정 기자가 먼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.

[기자]

"갑자기 제방이 터지면서 저수지 안에 있던

6만여 톤의 물이 쏟아져 하류 지역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."

"무너진 둑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물은

지금 제 뒤로 보시는 농경지와 둑 아래 상가 등을 집어삼켰습니다."

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때도 저수지 사면이 무너져 내리면서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한 저수지가 포항과 경주에만 4곳.

주민들은 반복되는 사태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

[이수근/경주시 왕신2리(지난 9월 14일)]

"해마다 그랬어요. 올해만 아니고... 태풍이 올 때마다 저 저수지가 붕괴될까 싶어서 항상 밤잠을 못 자죠. (저수지를) 지은 지도 50년 가까이 됐고..."

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마다 끊이지 않는 저수지 제방 붕괴 사고, 원인은 뭘까요.

태풍 힌남노 때 피해가 컸던 경주 왕신 저수지는 1975년 준공돼 당시 설계 기준인 "100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폭우"에 대비해 건설됐습니다.

지난 태풍 때 경주 강동 지역에는 천 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

저수지가 버틸 수 있는 용량의 10배의 폭우가 몰아친 겁니다.

[스탠딩]

"태풍 힌남노 당시 유실됐던 저수지 사면은 이렇게 흩 다지기 작업 후 방수포를 씌워 응급 복구를 마친 상태입니다."

[전기준/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수자원관리부장]

"지금 현재는 왕신저수지가 200년 빈도로 설계가 돼있지만, PMF(최대 가능 홍수)로 항구적인 복구로 설계할 계획입니다. PMF는 1만 년 빈도의 (폭우에 대비할 수 있거든요.)"

되풀이되는 노후 저수지 붕괴 사고,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상황에서 댐질식 조치만 반복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.

TBC 박정입니다.(영상취재 최상보)